

화엄의 가르침 화엄세상 뒤덮다

탄허 스님 현토본 '화엄경' 간행... 세계 도서관 등 5000권 법보시

탄허 스님이 토를 단(懸吐) <대방광불화엄경>(전5권, 교림출판사)이 해의 50여 개국 280개 대학도서관과 국내 600여 등록 도서관 등 880여 도서관과 석학들에게 법보시된다.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경전 법보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시 회룡사주지 성견은 구랍 28일 회룡사 극락보전에서 화엄학연구원장 각성 스님(부산 화엄사 회주)을 법주로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방광불화엄경>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각성 스님은 법어를 통해 "처음 발심할 적에 문득 정각을 이루는 온갖 신묘함을 간직하고 말과 생각을 초월해 벗어났기에 <대부사의경> <부사의해탈경>이라고 칭해지는 <대방광불화엄경>이 야말로 가장 본성에 부합되는 지극한 법문이고 일승(一乘)의 가장 중요한 계도"라고 말했다.

이어 각성 스님은 "성전 스님이 화엄경 5000권(1000권)을 세계 각국 도서관과 석학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고려 문종의 셋째 아들인 대국사가 중국에 우리 경전을 기증한 이후 1000여 년만에 일어난 보기



구랍 28일 의정부 회룡사 극락보전에서 <대방광불화엄경> 점안의식을 봉행하는 화엄학연구원장 각성 스님.

드문 발심 공양"이라며 "이 인연으로 더욱 가행정진하여 <유마경>에 나오는 월개(月蓋) 비구의 법공양과 같이 한다면 비고 밝은 참마음(虛明真心)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약 1억원의 재원이 든 이번 화엄경 법보시는 회룡사 주지 성견 스님이 2004년 입적한 은사 해주(慧珠) 스님의 은혜를 갚기 위한 원력에서 비롯됐다. 해주 스님은 80세의 고령

임에도 회룡사 회주로서 북한산 관동도로 반대운동을 펼친 스님이다. 법회에서 대중의 찬탄을 받은 성견 스님은 '법공양 회향 계승'을 통해 '화엄경 인경(印經)에서부터 독송, 수지, 유통하는 모든 이들이 이 공덕으로 속업(宿業)과 현업(現業)이 모두 소멸하고 복과 지혜 모두 증장하고, 보리심(菩提心) 모두 발하며 현세의 몸 모두 맑아지게 되면 함께 극락세계에 나서 불계의 모든 중생이

함께 무상도(無上道) 이루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들도 읽기 쉽게 3년간의 한문 교정 및 편집과정을 통해 간행된 80권본 <대방광불화엄경>은 오·탈자 없이 금장(金裝) 양장본으로 제작됐다. 각성 스님이 한문 및 한글로 서문을 쓴 이 경은 총 3000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1질당 30만원(각권 6만원)에 판매된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수술 마친 다보탑 "화사해요"

국립문화재연구소 다보탑 수리 완료 보고회 개최



국보 제20호 다보탑이 대수술을 마치고, 1년간 감춰졌던 다보여래의 자태를 드러냈다.

보수공사 기간 동안 다보탑 곳곳에 뭍혀있던 콘크리트가 제거됐고, 빗물이 빠지지 않아 검버섯처럼 피어난 이끼 등도 모두 걷어냈다. 탑 표면을 비롯해 해체된 석재의 구석구석까지 깔끔히 세척해 신라 경덕왕 10년(751) 축조 당시의 상태를 회복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구랍 29일 경주 불국사 현장에서 다보탑 수리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수리 전 다보탑은 1925년 전면해체 보수와 1972년 2층 허부 사각 난간과 상륜부 등 부분 수리를 거치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풍화와 부식으로 심각한 상태였다. 사각 및 팔각 난간, 상륜부 등 탑 곳곳에서 석재의 풍화로 인한 균열과 박리가 발견됐다. 콘크리트로 배수구가 막혀 탑 내부로 흘러들어가던 빗물은 시커멓게 썩어 석재의 색깔마저 변화시켰다.

특히 2층 난간부의 심한 훼손은 다보탑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였다.

1500년 이상 버티는 다보탑의 해체까지는 많은 준비가 따랐다. 3D 스캐닝으로 0.001mm까지 측정했고, 풍화도면을 작성해 원형복원을 위한 자료 수집에 만전을 기했다. 원형복원을 위한 철저한 준비 끝에서야 부재는 하나 돌씩 탑에서 분리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다보탑 수리를 위해 분리한 부재만 78개이다. 다보탑의 사각 난간에서 41개, 팔각 난간에서 24개, 상륜부에서 13개의 부재들이 숙련된 기술자와 연구자의 손에 맡겨졌다.

해체를 하고 보니 단순히 오랜 시간 비바람에 노출됨이 남아있던 것만은 아니었다. 결정적인 원인은 탑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보수된 다보탑 상륜부, 다보탑 전경, 균열된 부재 표면을 세척하는 모습, 균열된 부재를 충전제를 이용해 보수는 모습.

사진제공=문화재청



1층의 지붕돌과 2층의 몸체 사이에 빙 둘러 채워진 폭 20cm, 두께 25cm의 콘크리트 덩어리 때문이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석탑보수정비사업단 배병선 단장은 "2층의 빗물이 빠지도록 설계된 배수로를 일제가 모르고 콘크리트로 채워 막아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배수구가 막히니 빗물이 고여 이끼가 끼고 석재 표면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졌던 것. 급속한 부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탑은 그동안 물을 빼기 위해 난간 아래쪽이 풀리는 등 애꿎게 몸살만 앓아왔다.

해체된 부재 등은 초음파검사를 거쳐 내구성을 시험했다. 그 결과 박리와 균열이 심한 8개가 새 것으로 교체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측은

새 부재에는 기존 부재와 구별을 위해 표식을 넣었다. 그동안 보수를 위해 탑 곳곳에 덕지덕지 칠해진 콘크리트와 시멘트 모르타르는 정과 미세 드릴을 이용해 정교하고 깔끔하게 걷어냈다. 손상을 막기 위해 견식 부재를 찾아냈다. 세척 후에는 자외선을 쬐어 소독했고, 금이 가거나 꺾질이 벗겨진 부분은 접합하고 강화 처리했다.

배 단장은 "탑신이 수직에서 2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지만 안전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탑의 1·2층은 건드리지 않고 상륜부와 사각 난간, 팔각 난간 등 훼손이 심한 부분만 해체했다"고 설명했다.

조종섭 기자

이번주 20면 발행 ▶ 8 인터뷰 담교 스님 ▶ 10 선지식-지해 스님

사회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을 모십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산지역 포교에 앞장설 참신한 지사장을 모십니다.

제출서류 및 기한:

- 구비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 및 단체장),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및 사진 2매
- 제출기한: 2010년 1월 30일(토)
- 제출방법: 우편(30일까지 도착분 유효) 또는 본사 방문 접수

활동분야:

지역내 구독확장, 광고수주 및 수익사업, 기사제보 및 취재 지원

제출처: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팀
전화: (02)2004-8200 팩스: (02)737-0697

10·27법난특별법 개정안 통과 명예회복·피해조사활동 '탄력'

한시법인 10·27법난특별법의 유효기간이 3년 연장 되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법난 명예회복과 피해조사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구랍 29일 제28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10·27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는 역사기념관 건립과 피해 스님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한나라당, 국방위)이 대표 발의하고 41인의 국

회의원이 서명한 '10·27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부칙에 명시된 법의 유효기간이 2010년 6월 30일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됐으며 △제4조(피해자 신고 및 심사)에 '시행 후 1년 이내에 피해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 규정이 '201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영담 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은 "기존의 3년이라는 기간은 명예회복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법 개정으로 기한이 늘어난 만큼, 피해 스님들은 물론 불교계 차원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